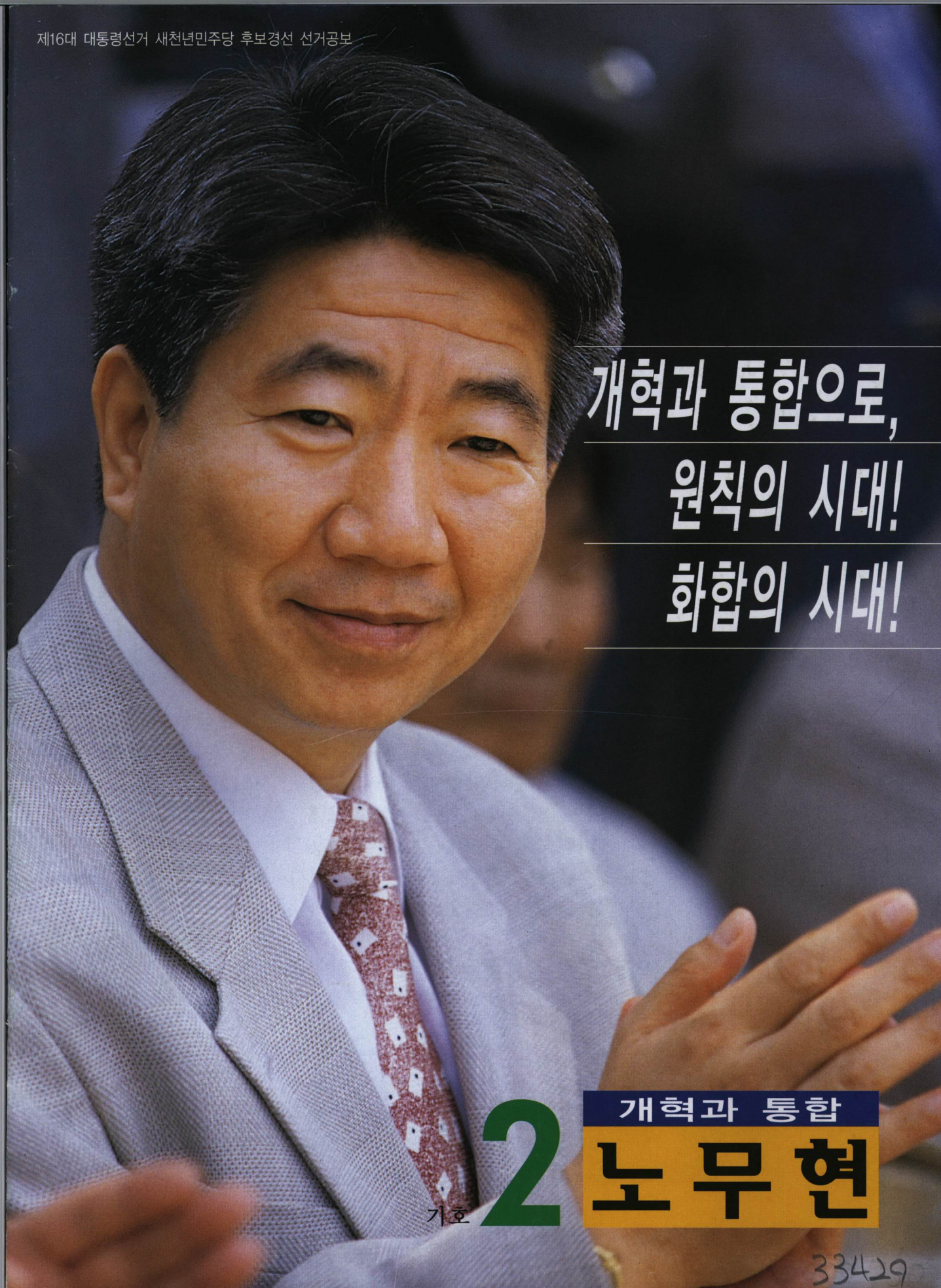
제16대 대통령선거 새천년민주당 후보경선 선거공보



개혁과 통합으로,
원칙의 시대!
화합의 시대!

개혁과 통합

기호 2

노무현

33429

떳떳할 수 없다면, 민주당의 후보가 아닙니다

민주당의 후보라면 민주당다워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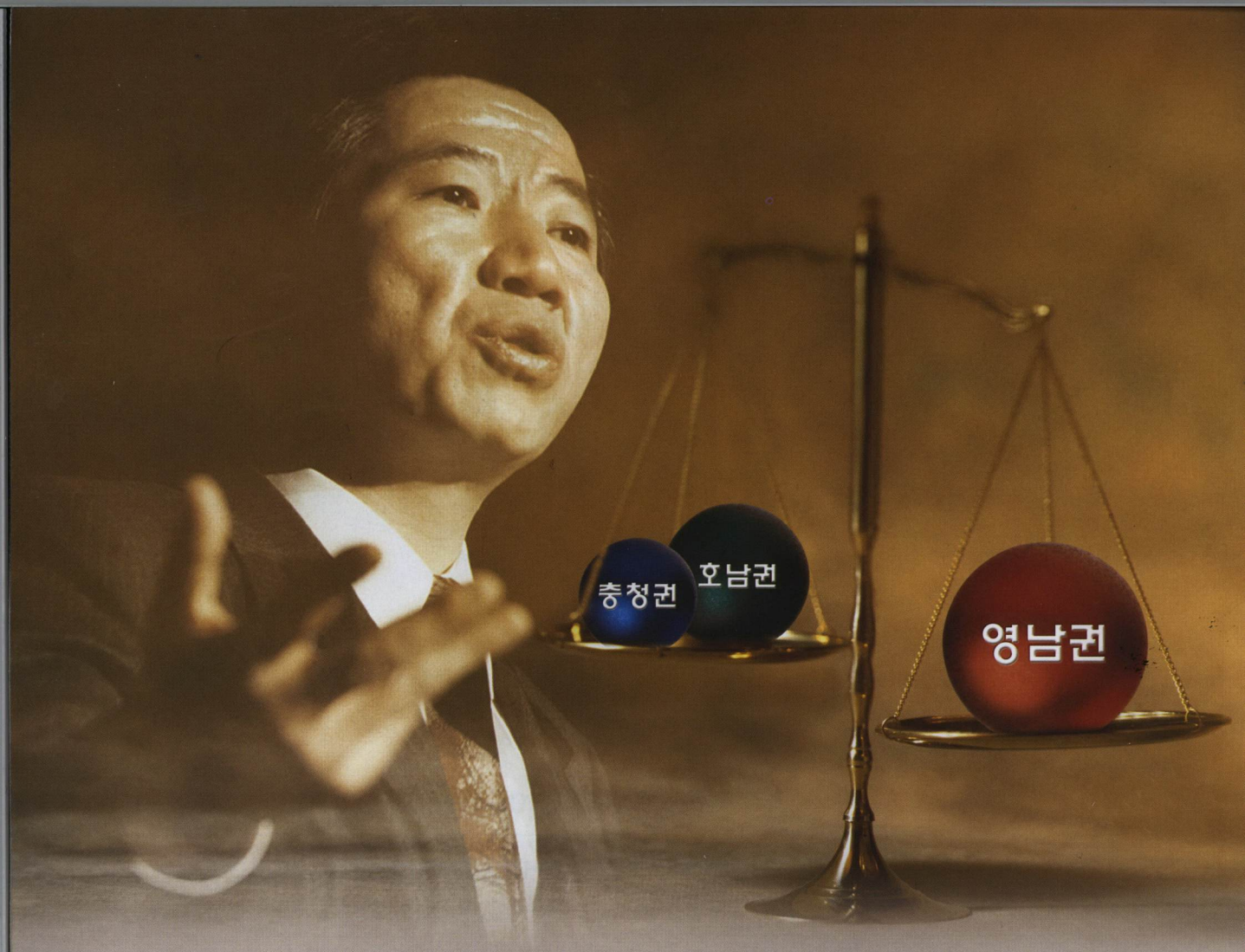
'중산층과 서민' 의 편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
'언론개혁' 등을 위해 앞장서서 발언해왔는지,
또 '동서화합'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을 해왔는지,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정체성과는 아무런 동질성도 없고
뿌리도 한나라당에 있는 인물이라면
과연 이회창 총재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그런 후보는 개혁 지향의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점이 많은 후보는 야당의 공격에 무너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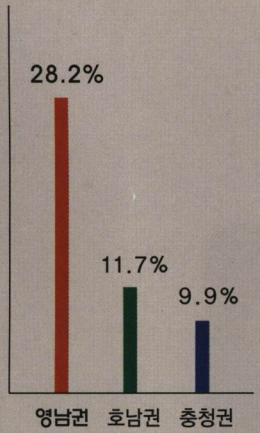
여기저기 당적을 바꾼 사람,
3당합당 등 분열의 정치에 가담한 사람,
경선에서 떨어지자 이에 불복한 사람,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이회창 총재와 구별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약점이 많은 후보는 야당의 공격 앞에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무현은 정정당당하게 살아왔습니다

민권 · 인권 변론에 앞장섰던 법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의 벗으로 지내왔습니다.
동서화합을 위해 희생의 한길을 걸어왔습니다.
자신의 당선을 위해 원칙을 버린 적도 없고,
언제나 소신 있게 개혁에 앞장서왔습니다.
그래서 야당으로부터 공격받을 약점도 전혀 없고,
이회창 총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
노무현이라야 민주당 지지자들이 하나가 됩니다.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역바람을 차단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회창 대세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경합지역이므로 대세의 근거가 아닙니다.
바로 영남권 표를 믿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권자의 28%, 절대적으로 큰 비중입니다.
충청과 호남을 합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영남에서 이회창씨의 표를 30% 이상 뺏어오지 못하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영남표는 더욱 더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97년 대선, 민주당은 DJP연합으로 최대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남표가 갈라지지 않았다면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한나라당이 국가경제를 부도냈는데도,
DJ가 아니면 그 난국을 극복할 인물이 없다고 하면서도
영남권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6대 총선 때 영남표는 더욱 똘똘 뭉쳤습니다.
당시 영남권에서는 이인제 선대위원장에게 찬조연설을
요청한 민주당 후보가 거의 없을 정도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영남권 64석을 싹쓸이했습니다.

영남권에는 노무현 지지표가 있습니다

95년 부산시장선거 당시 여론조사에서
노무현은 문정수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총재의 얼굴이 TV에 등장하고
지역등권론이 제기되자 표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6대 4·13총선에서도 노무현은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인제 선대위원장이 언론에 등장하면서
선두의 자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라당 허태열 후보는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로 공격했고
'제2의 이인제'로 공격받은 민국당 문정수 후보는
간신히 9% 득표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노무현은 이 두 번의 선거에서 모두
35%이상의 득표를 했습니다.

노무현이라야 이회창씨의 영남표를 뺏을 수 있습니다

4월 27일 노무현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면,
노무현의 영남 득표력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구도 정치가 뿌리부터 변하기 때문입니다.
부산·울산·경남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대구·경북의 정서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도 민주당을 지역당으로 몰아 세울 수 없습니다.
이제 지역바람에 휘둘리지 않는 전국정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회창씨의 영남표를 절반 이상 뺏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권재창출의 유일한 선택입니다.

노무현의 길은 민주당의 길입니다

90년 민정 · 민주 · 공화의 3당합당.
54명의 의원이 하루아침에 야당을 버리고 여당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국민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노무현은 합당을 거부하고 혼자 남았습니다.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호남을 따돌리고,
정치를 지역으로 가르는 반역사적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갔으면 재선 · 삼선은 보장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은 끝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노무현은 민주당의 길을 지켜왔습니다.
그 길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영남인으로서 영남패권주의에 반대했습니다.
줄 한번 바꿔 서면 당선이 보이는데도,
부산에서 연거푸 낙선을 거듭하면서도,
끝까지 민주당을 지켰습니다.

영남에 민주당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동서화합으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15대 대선에서는 김대중 후보의 TV 찬조연설을 통해
'호남도 정권을 잡아야 한다'고 역설했고,

그후에는 정치1번지로 불리는 종로 지역구도 포기하고
16대 총선에서 다시 부산에 도전했습니다.

지금, 반민주적 3당합당에 따라갔던 사람이
민주당의 후보가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노무현이 15년 정치인생을 걸어 지키려 했던
민주당의 정통성은 어디로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백번 양보해서
그것이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선택이라면
지금의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서대결은 필패의 구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이 이길 수 없는 구도입니다.

노무현에게 맡겨주십시오.
그가 영남을 설득하고, 전국을 설득할 것입니다.
노무현을 도와주신다면,
반드시 승리해서 국민의 정부와 김대중 대통령을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 것입니다.

개혁과 통합의 시대를 여는 노무현의 약속

1. 원칙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 동서통합 · 노사화합으로 국민을 통합하고,
   나아가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성공시키겠습니다.
3. 중산층과 서민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4. 내실 있는 경제, 안정과 성장이 조화된 탄탄한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5.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조세개혁과 복지제도로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6. 학벌사회를 청산하고 능력 위주의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7. 국민과 함께 하는 개혁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8. 책임총리제를 통해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9. 강력한 지방육성 · 지방분권 등 지방화정책을 펼치겠습니다.
10. 동북아경제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겠습니다.

기호 2 개혁과 통합 노무현

사무실 :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5 금강빌딩 3층
전화 02-3775-1663 팩스 02-3775-1664

홈페이지: www.knowhow.or.kr